

이젠 국제관계의 축이 에너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손 양 훈



미국이 수퍼파워로서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역할은 여전하지만 최근 그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식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패턴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에너지시장의 변화라는 견지에서 보면 일관된 흐름이 보인다.

중동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이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이 협상은 독자적 군사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도 변하고 있다. 사우디는 오랫동안 미국과 같이 국제 석유시장을 조정하는 협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미국은 군대를 파견하여 사우디 왕정의 정치적 안정을 도와주는 대신 사우디는 국제 석유시장의 안정에 적극 협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서 사우디를 크게 실망시켰고, 사우디는 대미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오고 있다고 경고하며 나서고 있다. 이른바 미국과 사우디의 60년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은 국제 에너지시장의 거대한 변화가 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미국이 지금까지 중동에 외교적 역량을 투입하고 군사작전을 감수하며 개입한 이유는 에너지를 확보하고 국제 에너지가격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수 년 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비전통 에너지가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셰일가스 뿐만 아니라 경질유를 중심으로 석유도 엄청난 양이 쏟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조만간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수출국으로서의 미국이라는 변화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생소한 일이다. 국제 정치에 거대한 변화가 닥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미국이 에너지를 수출한다는 것은 자국의 힘으로 유가를 움직일 수 있는 이른바 스윙 프로듀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셰일가스의 여파가 이 정도로 커지고 있다.

마치고 보면 중동의 분쟁에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매우 비싼 방식이다. 석유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에너지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석유수송로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을 해군력으로 통제할 수 있으면서 자국에서 생산된 석유로 시장 조절까지도 가능하게 되면 미국이 굳이 전쟁에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더불어 평상시에도 수출 가능한 에너지를 레버리지로 삼아 전통적 산유국인 러시아와 중동국가들을 견제할 수 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을 선언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걸프만 전쟁이후 24년 만에 전략비축유의 일부를 방출하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가의 급등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미국이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강화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러시아라는 거대 산유국을 조정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제질서 재편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가 미국과 서방, 그리고 러시아의 긴장국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